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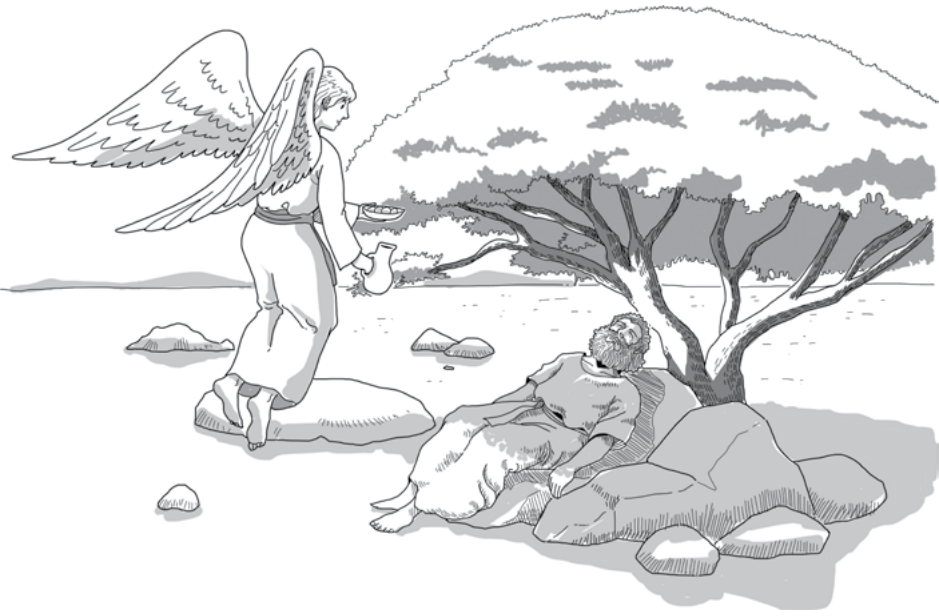
로렘나무 아래의 엘리야

왕상 19:1~18

찬송가 395장 (너 시험을 당해), 찬양 168장 (내 입술의 말과)



1. 위대한 신앙인도 낙심과 절망에 빠질 수 있음을 압니다.
2.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낙심과 절망을 극복할 때 더욱 영광스러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음을 압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렘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너의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렘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사십주 사십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렘에 이르니라 (왕상 19:4~8)



말씀을 이해하기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바알 선지자들을 상대로 놀라운 승리를 거둔 엘리야는 또 한 번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3년 반 동안 단헐던 하늘 문이 열리고 이스라엘에 비가 쏟아지게 합니다. 더 나아가 엘리야는 갈멜산에서부터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왕의 마차 앞에서 달려가는 초인적인 능력도 발휘합니다. 이렇게 화려한 승리를 거둔 엘리야는 이제 이 여세를 몰아 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를 완전히 제거하고 여호와 신앙을 재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과는 달리 이 모든 것을 직접 본 아합 왕도, 그리고 아합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세벨도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죽음의 위협을 가합니다. 이에 엘리야는 자기의 생명을 위해 이스라엘에서 유다를 지나 광야까지 도망칩니다. 그리고 광야의 한 로렘나무 아래서 심한 좌절과 허탈감으로 하나님께 죽음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꾸짖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 그를 어루만지시며 떡과 물을 주어 먹고 마시게 함으로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호렘산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을 위한 새로운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 혼자 남았다고 낙심하는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천명을 남기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며 우울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엘리야를 다루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한다면 다시 큰 힘을 얻고 열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과말씀 정리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 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 37:23~24)

The steps of a good man are ordered by the LORD, And He delights in his way. Though he fall, he shall not be utterly cast down; For the LORD upholds him with His hand (Ps 37:23~24)

- 1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 2 인생 가운데 항상 평탄한 길만이 아닌 넘어지는 길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 1 하나님은 낙담한 성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신 다음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명을 맡기십니다. 다음의 구절을 찾아보고 인물들이 어떻게 다시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는지 적어봅시다.

구분	낙담/절망	위로	사명
엘리야 (왕상 19:1~8)	엘리야가 낙담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왕상 19:10)?	절망 가운데 지쳐 잠든 엘리야를 어떻게 깨우셨나요(왕상 19:5~8)? 엘리야를 먹이신 것은 무엇이었나요?	엘리야에게 새롭게 맡기신 세 가지 사역은 무엇이었나요(왕상 19:15~16)? 1. ()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움 2. ()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심 3. ()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세우심

구분	낙담/절망	위로	사명
에스겔 (겔 1: 1~3)	에스겔의 직분은 무엇이었나요(겔 1:3)? 그발강은 당시 바벨론의 강입니다. 에스겔을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상태였나요(겔 1:1)? 바벨론에 사로잡혀 온 에스겔과 이스라엘 민족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먹이신 것은 무엇이었나요(겔 3:1~3)? 두루마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무엇이었나요(겔 3:4, 11)?
베드로 (눅 22: 31~34, 54~62, 요 21: 2~18)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베드로가 심히 통곡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눅 22:31~34)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눅 5:1~11)?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요 21:2~6)? 밤이 새도록 잡지 못하던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때문이었나요(눅 5:5, 요 21:6)?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물어보신 횟수는 몇 번이었나요(요 21:15~17)? 갈릴리 바닷가 어부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부르시고,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무엇이었나요(요 21:9~13)?	첫사랑을 회복시킨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들은 무엇이었나요(요 21:15~18)?

2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낙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낙심과 낙망에서 회복했던 경험을 분반 친구들과 교제해 봅시다.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시 17:8~9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의

시 34:15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화

시 42:5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

시 84:6

↓

눅 18:1

↓

눅 18:7~8

↓

갈 6:9



진통제와 같은 사람

인생길에서 고난은 마치 길동무와도 같습니다. 고난없이 산다는 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누군가 말했듯이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행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위기를 만나고, 그래서 절망하며 좌절합니다.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위로'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위로가 필요 없을 만큼 강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바울처럼 탁월한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에게도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골 4:11)

여기에 바울에게 위로가되었던 사람이 나옵니다. 유스도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경에서 오직 여기에만 단 한번 나오는 특별한 뜻을 가진 '위로'(παρηγορια 파레고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통제'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위로란 진통제처럼 고통을 완화시키거나 해소시키는 것이란 뜻입니다. 유스도가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진통제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와 교회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완화시켜주고 해소시켜주는 진통제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질문 있어요~



압살롬은 왜 망하게 하시고, 끝내 죽게 하신 건가요? 다윗이 배신해서 압살롬도 배신한 거 아닌가요? 다윗의 첩들과 동침한 것도 주님의 징계가 아니었나요?

다윗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삼하 12:13~14).

압살롬은 부친 다윗과 달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고,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고, 용서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복형인 암논이 자신의 누이 다말을 겁탈함으로 복수의 칼로 암논을 살해하는 죄를 짓고 부친 다윗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다윗을 떠나는 불효의 죄를 범합니다.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만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부친 다윗을 반역해서 왕위를 넘보는 죄까지 범하게 되고 끝내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왕권을 넘보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에 도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간음죄로 말미암아 살아 있을 때 많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기가 앓다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집에는 칼이 영영히 떠나지 아니하고 재앙이 일어났으며, 이스라엘 무리 앞에서 아들 압살롬이 자기의 처들과 동침하는 가슴 아픈 모습도 보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왕으로써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 다니는 신세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기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했을 뿐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압살롬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압살롬을 죽음에서 구해 주셨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에 대하여 담대합니다.

하나님은 잃어진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또한 기뻐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요일 1:9)